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민환



대학 4학년 때 일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길을 쓰기 위해 공화당 정부가 개혁을 시도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3선 개헌 반대 운동이 대학가를 휩쓸었다. 나는 취직 준비를 해야 한다며 한동안 발을 빼고 있다가 뒤늦게 그 운동의 한 구석에 서게 되었고, 그 죄로 시위가 한 풀 꺾일 무렵에 6개월 정학처벌을 받았다. 1학기 말에 6개월 정학을 맞아 짝짝 없이 1년을 더 다녀야 했다.

그러나 나만 당한 것이 아니었다. 모두 열 두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야기를 마치고 헤어지려 하는데 어느 학생이 학생처장께 세배 드리러 가지고 왔다. 한 학생이 이 제의에 강하게 반발했다. 무더기

징계를 내린 처장에게 세배를 가다나 말이 되느냐는 것이었다. 그러자 다른 학생도 거들었다. 세배 가는 것은 투쟁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징계의 정당성만 인정하는 행위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내린 결론은 가지는 쪽이었다. 처장이냈던 윤 아무개 교수님을 찾아가 열 두 명이 한쪽 큰절을 하는 바로 그 찰나에 나는 당혹감 같은 걸 느꼈다. 최고학년인 내가 선생님께 무슨 말씀인가를 드려야 하는데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곤혹스러움은 퇴학 처벌을 당한 1년 후배가 단숨에 풀어주었다.

“4·19 때 조지훈 선생님께서 ‘너들 마음을 우리가 안다’는 시를 남기셨습니다. 선생님, 어찌 선생님만 학생들 마음을 알

겠습니까? 저희도 선생님 마음을 압니다. 저희들에 대해 부담 느끼지 마십시오.” 지금은 장관이 되어있는 이상수 군이 그렇게 말했다. 그야말로 명언이었다. 깜짝 놀라며 얼굴을 활짝 펴시던 선생님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90년대 초반 어느 날이었다. 나는 학교 연구실로 가다가 복도 벽면에 붙은 벽보 하나를 발견했다. 총장을 험악하게 비난하는 대자보로, 내가 소속한 단과대학의 학생회가 붙인 거였다. 내용은 뭔지 모르겠으나 제목에 저질스런 날발이 여럿 들

어쉬움을 지금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나만 있지 너는 없다

몇 주 전에 학교에서 일이 터졌다. 학생들이 보직교수 여러 분을 감금한 바 있는데 학교에서는 주동 학생 여러 명을 처벌한 것이다. 출교 처분을 받은 학생만 일곱 이란다. 요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얼마나 못 된 짓을 했는지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고 있고, 학생들은 학교 처사가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만을 강변하고 있다. 교수가 학생들 마음을 알고, 학생들이 교수를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이제 옛 이야기일 뿐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어디 학내문제에 머물 일인가? 대충같이 편이 같던 우리 사회가 이런 걸 가만 둘 리 없다.

보수 신문은 학교를 싸고돌면서 다른 대학도 학생운동에 강경 대응하도록 부추긴다.

진보 매체는 반대로 학생들을 편다. 온통 나만 있지 너는 없다. 세태는 조지훈 선생과 이상수 후배를 다시금 그리워하게 한다.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지훈과 이상수

어 있었다.

나는 연구실로 가 단과대 학생회로 전화를 걸었다. 내 신분을 밝히고 대자보를 때라고 말했다. 학생이 왜 때야 하나고 물었다. 나는 간단하게 답했다.

“학생운동의 품격을 위해 때 내게.”

10여 분 뒤 수업을 하러 가며 보았더니 대자보가 붙어 있던 벽면은 말뚝해져 있었다. 조지훈 선생이 가르치고 이상수 군이 배운 그런 학교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그 자랑스러운 후배 학생들에게 그 때 자장면이라도 몇 그릇 사주지 못한

시설

‘私學法 사수’ 민생법안 차질 낼 만큼 중한가

개정 사립학교법을 다시 고쳐서 안된다는 열린우리당의 강경노선이 임시국회 막판 또다시 여야의 불협사운 대결을 부르게 됐다. 열린우리당의 요청을 받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등 가장 다급하다고 판단한 4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학법 개정 직권상정 때 벌어졌던 본회의장 육탄전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는 국회와 이런 모양으로 흘러가는데 대해 과연 열린우리당이 여당 맞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립 학교법등 개정형 이차 추진권을 확대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열린우리당이 거부하면서 정국이 경색되자 노 대통령이 나서서 “대승적으로 양보하라”고 까지 했지만 여당은 이를 거부하는 강수를 뒀다. 대통령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우리는 국회와 이런 모양으로 흘러가는데 대해 과연 열린우리당이 여당 맞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립 학교법등 개정형 이차 추진권을 확대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열린우리당이 거부하면서 정국이 경색되자 노 대통령이 나서서 “대승적으로 양보하라”고 까지 했지만 여당은 이를 거부하는 강수를 뒀다. 대통령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도 ‘선명성’을 위해 민생을 희생한다는 논리다.

여당의 책무와 선명성을 동시에 수행하기란 힘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은 양보 못하면서도 급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단독국회’를 강행기로 하고 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국방개혁기본법안, 주민소환제법안, 동북 아열사제법안, 국가재정법안, 로스쿨 법안 등 18개 민생개혁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이중 4개만 채택된 것이다.

국회는 오늘 4개 법안에 대해 황급히 상임위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시도한다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지로 소동이 벌어질 것이고 이에 따른 국본분열과 여야대결 장기화는 또 불가피해졌다. 5월에 임시국회를 연다 하더라도 나머지 법안들의 순탄한 통과는 어렵게 됐다.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닌 사학법리를 잡는다며 민생법안들을 차질 내는 여당이 안타까울 뿐이다.

촌지 누명 안쓰러 스승의 날 휴교한데서야

스승의 날인 오는 15일 광주지역 상당수 학교들이 하루 임시 휴교에 들어간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초중 26개교, 중등 54개교 등 80개 학교가 학교 운영위 심의 등을 거쳐 휴무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광주교총 관계자는 “스승의 날에 하루를 쉬면서 은사를 찾아보는 날로 삼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 자율적 결정을 내렸다”며 “촌지로 인한 잡음을 없애기 위한 서울지역 스승의 날 휴무와는 배경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지역 역시 스승의 날 촌지로 부러 자유로울 수 없다. 언제부터 인지 스승의 날은 모두에게 피해가고 싶은 날로 전락했다. 스승의 도덕성이 의심받는 날이 돼 버렸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촌지관련 여론조사가 공개되고 ‘촌지를 받지 않는다’는 낯 뜨거운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도 했다.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자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촌지 누명을

벗기 위해 스승의 날 학교 문을 닫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스승의 날에 학교를 가지 않는다고 촌지가 사라질리 만무하다. 촌지를 받지 않는 수많은 교사들의 자존심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선생님 가슴에 카네이션 한송이를 달아드리는 화창시절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마저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공교육 붕괴와 함께 교단의 권위도 추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 불경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지역 역시 스승의 날 촌지로 부러 자유로울 수 없다. 언제부터 인지 스승의 날은 모두에게 피해가고 싶은 날로 전락했다. 스승의 도덕성이 의심받는 날이 돼 버렸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촌지관련 여론조사가 공개되고 ‘촌지를 받지 않는다’는 낯 뜨거운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도 했다.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자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촌지 누명을

無等鼓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미래의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600억불 석유를 수입해야 했던 우리로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걱정 이만저만 아니다. 1년 수출액이 3천억불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석유수입에만 연 1천억불을 써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에너지위기가 외환위기만큼이나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에너지 선진국에서조차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생산비가 워낙 많이 먹히기 때문이다.

수소의 에너지 시스템을 실용화하기 까지는 제조, 수송, 저장, 변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우선 수소를 생산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어야 하고, 경제적 저장과 수송은 물론 공해없는 연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의 전력 경제에 미치는 수소경제가 이뤄질 수 있다.

얼마전 전북도는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그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부안군 하서면 일대 11만평에 1천여원의 사업비로 수

소파워파크시설, 체력·테마시설, 산업단지 등을 조성,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실증연구단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고유가 시대, 우리의 수소경제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수소에너지 개발에 대한 전북도의 의지가 앞장 성과를 맺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수소경제가 이뤄질 수 있다. 얼마전 전북도는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그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부안군 하서면 일대 11만평에 1천여원의 사업비로 수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병규



지난 토요일 오후, 봄비 촉촉한 무등산 자락 의재미술관에서 촌설차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호남문화원 구소와 의재미술관이 주관하고 광주일보사가 후원한 ‘동아시아 차문화와 광주의 촌설차’라는 토론회의 장이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참가한 이 행사에서 ‘촌설차의 글로벌 마케팅과 디지털 콘텐츠’ ‘중국 다도의 인문학적 의미’ ‘일본 다도의 양식과 전통’이라는 내용의 학술 발표가 있었고, 참가국 시연자들이 자국의 특산차와 전통기법을 재현하여 동아시아 3국의 차 문화를 공유하는 뜻 깊은 행사였다.

어 낸 인물. 의재 선생은 추사 김정희, 초의, 소치 허련과 미산 허영의 화맥을 계승하여 남종 문인화의 전통을 이루어 낸 한국회화의 큰 인물이다. 많은 유명 화가를 배출한 진도 양천 허씨의 운림산방 후손으로 이 산방의 비밀 또한 신비스럽다. 아마 계속 5대째 30여명의 화가를 배출한 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일이다.

선생이 무릇 어느 예술인보다 돌보이는 것은 화업에 정진하면서 활발한 사회운동을 하셨다는 것이다. 천·지·인을 사랑하고 존중할 삼애정신으로 구한말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고 농업고등기술 학교를 무등산 기슭에 세워 화가 지방 생에게 농사일을 먼저 시켰으며, ‘차를 많이 마시면 정신이 차분해져서 나라가 흥한다’ 하여 일찍부터 다백으로 우리

우리가 자랑할 문화예술의 천재

드는 대표적인 문화컨텐츠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국제학술회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사실 세계의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관광지로서 매력 있는 도시는 역시 몇 가지의 특별한 유인 상품이 관광객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 신이 주신 기막힌 자연환경이나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문화유산, 그리고 그 도시를 대표하는 천재들이 바로 그 추억이다.

정신을 계승한 것이 바로 그 것이다. 또한 선생은 일본 유학을 다녀온 뒤 무등산에 정착하여 선생을 만나러 촌설현을 찾은 단골 손님인 육당 최남산, 노산 이은상, 미당 서정주, 함석헌 등과 자주 교류하였으며, 한국에 올 때마다 촌설현을 찾은 ‘25시’의 작가 게오르규와도 친분을 쌓기도 하여 오래전부터 우리지역 문화예술의 교류의 중심에서 활동하셨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내 놓을 만한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이 부족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일은 천재를 찾아내는 일일 것이다. 이제 우리도 우리 지역을 알릴만한 천재를 찾아내는 것을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일이다. 예술의 장르와 파벌을 떠나 동반 상승할 수 있는 한류 같은 신기루를 만들어 볼 만 하지 않은가. 의재 허백련,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무등산 자락에 웅지를 틀고 엄숙한 다선의 경지로 한국 화단을 일구

이같은 천재 화가 의재선생이 걸어온 발자취 하나하나가 이곳 광주의 영산인 무등산의 녹차밭, 촌설현, 의재미술관과 함께 고스란히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촌설현 앞 옛 농업학교 자리에는 의재미술관이 지어져 진도의 운림산방, 목포의 남농미술관과 함께 이곳을 찾는 일반인들에게 천재의 일생을 기억해 주고 있으니 뿌리 있는 우리지역의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내 놓을 만 하지 않은가. <광주시 문화정책실>

단체 관광버스 ‘줄잇는 질주’ 안전문제 있다

최근 수학 여행단을 태운 버스 10여대가 다른 차들의 끼어 들기를 막기 위해 안전 거리도 지키지 않은 채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을 봤다. 또 나들이 등을 갈 때 여러 대의 승용차가 나뉘 타고 가면서 앞 차량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되면 앞 차량에만 신경을 쓰게되고 주의력이 분산돼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킬 우

려가 높다. 또 뒤 따라가는 차량 운전자는 여행에 대한 즐거움은 커녕 앞차량의 지시등과 브레이크 등만 지켜보며 몇 시간을 긴장한 채로 운행해야 된다. 차라리 목적지 도중에 특정 집결지를 정해놓고 운행하는 것이 낫다. 뒤따라가는 여행보다 훨씬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 <김민석·광주시 광안구 서봉동

말썰꾸러기 쌍봉낙타. Includes image of a camel and text about camel products and services.

독자마당

자동차 전문학원 재시험비 문제 많다

남동생이 1층 면허를 따기 위해 자동차 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봤는데 도로 주행에서 떨어졌다. 그런데 시험이 1주일 뒤에 있어 다시 응시할 생각으로 문의했더니 재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보통 교육 5시간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 한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에서 한반씩만 떨어지더라도 보통교육비와 각종 인지 등 금액을 포함하면 100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시험장에서는 시험에 떨어진 뒤 접수비만 내면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또 재시험을 위해 교육비 11만2천원, 검정료 4만원 등 모두 15만2천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학원측은 설명했다. 요즘엔 자동차 전문학원에서 수강을 하면 7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학원비를 지불해

야 한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에서 한반씩만 떨어지더라도 보통교육비와 각종 인지 등 금액을 포함하면 100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시험장에서는 시험에 떨어진 뒤 접수비만 내면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유독 학원에서만 다시 돈을 내고 보통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형평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권윤영·광주시 서구 차평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